

목어

치열한 삶의 계절

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돈다. 곡식이 제대로 익으려면 여름이 여름답기도 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 또한 문제다. 땀방울도 문제, 가뭄도 문제인 것은 마치 자유와 고독의 양자택일처럼 선택의 고민을 불러온다.

바람직한 것은 이렇다면 중도라 할 것이다. 이상기온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기분도 중도를 잃는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짜증이 더욱 찾아온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회문제도 좀 덜 발생했으면 싶다.

한약분쟁에 이은 의약분쟁으로 전국에 의료대란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더니, 이번에는 금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집단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생존권과 이권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인간세계라고 예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치열한 것이 인간세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란 동물이나 곤충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화제의 사대니,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 말이 즐거우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함께 만들어 가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보다 온전하게 하는 길임을 사람들이 깨닫곤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도 잠깐, 자신의 이기심을 잠시 접거나 쉬는 일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처럼 싫어한다.

부처님은 이를 중생들의 생래적인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치셨다. 서로의 이익만을 다투다 함께 피해를 당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다 결국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단견의 중생들은 서슴지 않는다고 말이다.

뜨거운 한여름처럼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도 자기를 적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색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는 부채가 그늘같은 여유가 아쉬워진다.

도수(정업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생명, 법으로 빼앗을 수 없다

불교계 사형제 폐지운동 '의의'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발족시킨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위원장 진관스님)가 4일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사형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늦었지만, 사형제 폐지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사상적인 근거를 정리한 것은 생명중중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로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형제 폐지국가 우세

부처님께서는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천여년까지 살해하려 했던 앙굴리 말라를 진심으로 참회시켜 재자로 받아들였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으나 3역죄(逆罪)를 짓고 무간지옥에 떨어진 제바달다에게 성불할 수 있는 수기를 내려주신 것도 진심으로 개과천선(改過遷善)한 살인자를 제도하신 인간중중사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살생중죄 금일참회'의 생명중중사상을 교리적 배경으로 지닌 불교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불법(佛法) 실현의 관점에서 옹당 주장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말 여야 의원 70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운동을 펼쳐왔던 종교계와 시민단체측은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없으며 법의 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대측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사형제 폐지운동이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유엔이 '사형제도의 해'로 선포했던 89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79개국이고 유지 국가는 101개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러시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제 폐지국이 106개국, 유지국이 89개국으로 그 수가 역전됐다.

정부 법제화 촉구 여론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군사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인류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당기간 후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 검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사형을 자제하는 식으로 사형제도를 운영하다 상당기간을 거친 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형제 폐지 입법화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특별히 제도화는 안 했지만 사실상 사형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 묵시적으로 동의(천주교인인 만큼)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불교 등 종교계의 사형제 폐지 운동은 정부의 사형제 폐지 법제화에 힘을 실어주는 일로서 종교적 명분과 사회운동의 성과도 담보할 수 있는 사안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늦었지만 종단 차원의 지원방안이 검토돼 불교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일 서울지역 광역신도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6개 단체인 참석해 신도법에 따른 조직구성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지스님 OK없이 조직결성 제대로 될까

서울광역신도회 창립간담회 '셀렁'

조계종 광역신도회 구성이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다. 4일 서울광역신도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에 6개 단체인 신도회 3곳, 신도단체 3곳만이 참석했다.

각 도의 대표도시에 지역신도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신도법에 따라 중앙신도회는 서울지역 신도회 구성에 나섰다. 서울 지역 43개 신도회와 신도단체에 참가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16개 단체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막상 창립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는 6개 단체인 신도회 3곳, 신도단체 3곳만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신도회 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2~3차례 사찰과 신도단체에 직접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은 사찰신도회의 지원 기반 미약에 화살을 들렸다.

중앙신도회 한 관계자는 "참가하지 못한 대부분 사찰신도회의 경우 주지스님에게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주지스님들이 신도회 운영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힘있는 전국 신도조직 결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지스님에 의해 사찰신도회가 좌지우지 되다보니 폐쇄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전체대중의 대표가 되지 못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한탄이다.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신도회가 해당사찰 주지스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이는 것은 물론 연락도 안되는 실정부터 해결돼야 신도조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www.kim@buddhapia.com)

신비 영역 벗어나 일상성 회복해야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19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과 대안(2)

필자는 한국 선불교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성은 불성의 보편성만큼이나 선에 대한 정보가 보편화되어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는 지적이고 이성적 종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도의 교리나 이론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놀랄 만치 낮고 좁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를 경시하는 선불교의 잔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떤 가문에서는 교화를 극도로 혐오한다. 그 까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극단이란 언제나

편협하고 위태로운 것이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했는가. 간혹 문자 속만 뒤지는 구두선의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기가 무서워도 된장은 담아 먹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수행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선종사를 보면 일류 지식인들이 일거에 깨친 예가 너무 많다. 무식한 사람이 사랑분별이 쉬는 무식의 경지에 더 쉽게 이른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혜능이 과연 무식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가 '무식했기 때문에' 경성하기 쉬웠다고 볼 수는 없다. 무식한 사람이 망상이 더 적은 것은 결코 아니며, 그 반대라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오히려 왜 사랑분별을 쉬어야 하며,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깨달아 이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목적지와 거기에 이르는 도정에 관한 정확한 지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과 같다.

선을 대중화하는 것은 시민 선방을 많이 짓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순간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선은 체험된 동시에 체현에 이르는 길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선의 방법론, 또는 선수행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론은 선이 신비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일상성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선수행론은 '어떻게', '왜' 간화를 해야 하나 하는 물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포함해야 한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선수행에 앞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몸과 마음의 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심신에 장애



서정형 서울대 강사·철학

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수행론은 이러한 장애를 걷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의 교화를 정립하는 자체가 실천수행의 성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가 아무리 자세해도 어떤 이유에서든 몸소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선이 과연 모든 대중들에게 적합한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답은 다소 부정적이다. 출가 수행자들은 몰라도 가정과 직장을 가진 생활인에게는 불리한 수행의 수가 있다. 그것은 화두 참구와 일상적인 삶이 양립할 수 없어서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논설고문: 고은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갈월사 영탑(靈塔)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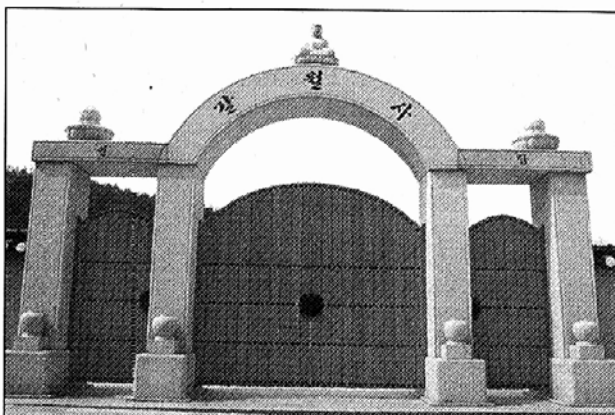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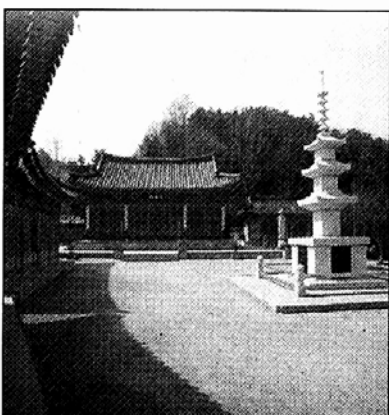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묘지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공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댁들의 초제부터 77세와 49세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기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기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alsa.bz.co.kr

◀정문